| 현불 논단 |

지금도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



이미령
칼럼니스트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마무리됐다
분주했던 경내도 이젠 조용해져
연초부터 오직 이날만을 준비해

마치며 '가난한 노파의 등불' 상기
목련존자 나서도 꺼지지 않은 燈
"부처님오신날 이후 생각하라" 교훈

화려한 행사로만 생명 유지 못해
찬란한 등불 밑이 더 어두운 법
불교계는 자기 발밑을 비춰봐야

사찰 안이 고요하다. 주지 스님도, 원주 스님도, 부전 스님도, 종무원들도 보이지 않는다. 공양간으로 가본다. 부처님오신날 그 많은 대중에게 먹을거리 지어내느라 부산했던 솥이며 냄비, 커다란 양푼들 모두 깨끗하게 씻어 물기 빠지라고 엎어놓은 채 공양간 보살님도 어딜 가셨는지 보이지 않는다. 다들 잠잠하시다. 부처님오신날이 지나니 사찰을 드나들던 모든 인적이 약속이나 한 듯 다 끊어졌다. 고요함만이 가득한 경내엔 높이 내걸린 연등이 하릴없이 봄바람에 흔들린다.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 오직 그날 하루를 위해 참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왔다. 등을 만들어 법당이며 경내 뜨락 위며, 마을 입구며, 자동차 씽씽 달리는 도로에까지 등을 내거느라 얼마나 고생했던가.

연등행렬에 참여하려고 청년회, 학생회는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커다란 등을 만드느라 정말 힘들었다. 공양간에서는 몰려드는 신도들과 대중에게 맛깔스런 절밥을 대접하려고 또 얼마나 비지땀을 흘렸을까. 이 모든 일들을 총지휘하느라 올해 초부터 스님들도 발을 동동거리며 부지런히 오가셨을 터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절 신도만이 아닌, 평소 발걸음이 뜸하던 신도의 가족들, 그리고 데면데면 지나치던 이웃들과 행인들이 절에 오는 날이다. 불사라면 멀찌감치 달아나던 사람들도 부처님오신날이니 연등 하나 쯤을 밝혀야하지 않겠느냐며 지갑을 열고 흔쾌히 불전함에 시주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않던가.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느라 반년을 보내고, 부처님오신날의 수입에 의지해서 나머지 반년을 산다고.

그 어마어마한 행사가 이제 막을 내렸고, 잠깐의 휴식기를 거친 뒤 불교계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초파일을 무사히 지낸 뒤 바람만이 고요히 지나는 사찰 경내를 거닐면 새삼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가난한 노파의 등불' 이다.

"아, 그 이야기를 또 합니까"라고 진저리를 치는 분들이 계실까? 그런데 가난한 할머니의 등불이야기는 정작 부처님오신날이 지나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도 어마어마한 재력가도 평범한 이웃들도 모두가 등불을 밝히며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고 다들 돌아간 이후, 부처님은 사원을 환히 밝힌 등불을 모두 끄도록 목련존자에게 이르시지 않았던가.

목련존자는 모든 이들의 원을 담은 등불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씩 꺼나갔고, 존자의 손끝에서 세상 모든 등불은 그렇게 사위어갔다. 그러나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할머니가 간신히 마련한 몇 푼의 돈으로 기름을 사서 밝힌 등불은 어땠는가. 바람에도 목련존자의 손으로도 꺼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정성으로 등을 밝히라는 메시지보다 부처님오신날 그 이후 불교계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절실하게 도움을 바라는 가난한 이웃을 살피고, 세속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힘겨운 이들을 든든하게 후원하고 지지하며, 저들이 조금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일, 그리고 불교계가 자정의 힘을 갖추어 온 세상 양심들의 마중물이 되는 일이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만 화려하면 그 생명이 얼마나 오래갈까. 찬란한 등불 바로 밑이 더 어둔 법이라고 하지 않던가. 다행히 가난한 할머니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무엇보다 불교계는 자기 발밑을 비춰볼 일이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어떻게 빛을 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일이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냉장고 비우기=탐욕 없애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다. 우리 집의 경우 전기세, 수도세 등은 언제나 같은 평수 아파트의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같은 평수의 평균치를 웃도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다. 평소 늘 과하다고 느껴왔기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래도 고지서에 그림으로 비교분석의 수치가 나오니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까? 이유는 간단하다. 먹을 것들이 냉장고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산골에서 살 때는 냉장고가 없었다. 시원한 우물에 참외 동동 띄웠다가 먹어도 시원했다. 과일이나 야채는 밭에서 필요할 때마다 따서 먹으니 보관할 이유가 없었다. 예전에는 조그만 냉장고 하나로 6인 가족이 너끈히 지냈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대용량의 냉장고에 그것도 모자라 냉동고까지 구비하고 산다. 게다가 집 앞에 즐비한 대형 마트를 수시로 드나들며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지"라며 대량묶음 상품, 1+1 상품들을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들이다 보니 냉장고는 늘 음식물로 차고 넘친다. 많은 경우, 냉장고로 들어간 음식들은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냉장고가 120 l 크기에서 최근 901 l 까지 등장했다니 커져만 가는 냉장고에 우리가 채워 넣은 것은 무엇일까? 결국 쓰레기가 될 음식, 수없이 득실거리는 변종 대장균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망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냉장고가 애물단지처럼 여겨진다.

어린 시절 과실나무에서 갓 따온 과일들을 먹고, 밭에서 막 캐어낸 야채들을 먹어온 입맛 때문에 냉장고에 든 음식을 싫어하니 우리 집 냉장고는 더욱 푸대접 신세다. 요즘은 남편도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싸다고 사다 나르던 장보기를 멈추고 냉장고 비우기를 시도 중이다. 수시로 냉장고 비우기를 시도하지만 비워지는 속도보다 채워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요즘은 미니멀리즘의 흐름을 타고 냉장고 크기를 줄이고 또 간혹 없이 사는 사람도 종종 있는 걸 본다.

우리나라에서 냉장고 없이 산 사람의 선구자를 꼽는다면 윤호섭 국민대 명예교수일 것이다. 그는 2003년 냉장고와 에어컨을 없앴다. 벌써 16년째 냉장고 없이 살고 있다. 윤 교수는 냉장고를 없앤 후 대형 마트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시장이나 트럭 등에서 딱 필요한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터질 것 같은 우리 집 냉장고와 평균을 넘어선 음식물 쓰레기 양, 이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윤 교수의 소비 방식에서 발견한다. 대형 냉장고 소비 세계 1위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윤 교수는 이렇게 묻는다.

"냉장고 없이 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 그런데 오히려 큰 냉장고를 비싸게 주고 사서 그 안에 음식물을 넣고 썩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나 역시 그 이상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한 방송국에서 냉장고 비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결과 여느 가정집 냉장고에 든 음식물만으로 40여 일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 집의 경우는 어떨까? 이제 시작 단계인 냉장고 비우기를 통해 내 안을 채우고 있는 욕심과 어리석음도 말끔히 비워내 봐야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日 반출 백제금동관음상 환수 나서야

지난해 일본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에 대한 국내 환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재)문화유산회복재단과 충청남도반출문화재실태조사단은 5월 8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 지자체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뉴거버넌스를 구성해 연내 환수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도 이미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 환수 활동 및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한 상황이며 오는 5월 17일 제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 환수 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조사단 구성 및 활동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국외 문화재 환수와 보호를 위한 조례를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충남도와 부여군에서 적극적으로 환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불교계는 아직 별다른 행보가 없다.

현재 백제금동관음입상은 상하이박물관 문물보호과학기술센터에 소장돼 있다. 백제금동관음입상은 연구 · 분석 이후 상하이박물관의 '영원한 실크로드-불교예술의 기원' 전시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최응천 동국대 교수의 제보에 따르면 백제 불교미술 전성기의 불상에 대해 중국 측은 "수와 당의 영향을 받은 작품" 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서산 마애불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백제의 미소를 가졌다는 극찬을 받은 백제금동관음입상이 '중국불교미술의 일부' 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생겼다.

불교계도 더 이상 백제금동관음입상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부여군과 충남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불교도 동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의 환수 운동 동참을 바란다.

봉은사 거사림 창립에 부쳐

서울 봉은사가 5월 10일 거사림회를 창립했다. 모집 공고 결과 15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인선위원회를 거쳐 130명으로 출범했다.

인도 불교에서 거사는 부유한 자산가를 의미한다. 평민 계층 중 자산을 일군 이들로 불교 외호와 재가 중심의 신행문화를 이끈 존재들이었다.

근현대 한국불교계에서도 훌륭한 거사들이 많았지만 조직화는 더뎠다. 하나 둘씩 언제부터인가 불교계에서는 '거사림회' 로 대표되는 남성 불자 조직이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한 사찰이 부쩍 많아졌다.

불자 감소와 노령화, 신행 패턴 변화 등의 이유가 복합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사불교를 구축하겠다는 사찰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거사들은 신행활동과 함께 사찰의 행사마다 적극적인 활동을 담당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한마음선원 법형제회의 경우 지원 환경 조성을 비롯해 수련회와 합창단 활동 등을 통해 도반 간의 법연을 나누고 있다.

거사림회 조직은 여성신도 일변도의 한국불교에서 신도 조직화를 일구기 위한 시작이다. 이를 위해선 사찰 측의 관심과 기존 신도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등이 필요하다.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형식적인 부파불교를 거부하고 수행과 실천의 대승불교 요체를 드러냈다. 한국불교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한 길도 이러한 이 시대 유마거사들을 배출하는 데 있다.

봉은사의 거사림회 창립이 서울 강남의 남성불자들의 결집을 넘어 한국불교 전반적인 거사불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부처님오신날 2019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사)해동불교 조계종 총무원
시대산 영 천 사
(천년고찰)
"부처님 오신 날 축하 합니다."
총무원장 석 혜 암
종도모집
21세기를 주도할
스님(법사)을 모십니다.
(임명장,추대장,등록증 등
발급해드립니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010-8224-1688

부처님오신날 2019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승보종찰 송광사 서울분원
법 련 사
주 지 진 경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0
Tel 02-733-5322 Fax 02-733-5379
bubryun5322@hanmail.net